◉ 濟州島硏究, 제 3 집, 1986. ◉

天主敎 濟州宣敎中의 新舊葛藤(1901)

洪 淳 鈺*

Ⅰ. 머 리 말

濟州敎亂에 대한 筆者의 흥미는 雲養 金允植의 續陰晴史를 훑어보는 가운데 그가 乙未事變의 閔妃弑害事件 連累嫌疑를 받고 그로써 두번째의 流配地인 濟州에서 謫居時 濟州城 안에서 直接 聞見한 바를 日記로 쓴 것을 읽으면서 그 內容의 昭詳함에 끌려 들어갔던 것이다. 雲養은 敎亂 바로 앞의 房星七·南學黨亂도 겪어 그 때는 房黨에 誘引될 것을 꺼려 피난을 하였지만 敎亂時에는 開門 4일전 5월 24일 本土의 兩湖의 民亂, 即 嶺南은 活貧黨, 羅州는 敎亂에 官軍이 苦戰한다는 情報에 京兵이 내려올 可能性이 없어보이고 濟州城外民會측의 開門脅迫으로 勢가 急하게 되자 朝天으로 피난코자 하다가 길이 막혀 이루지 못하고 꼼짝없이 城內에 주저 앉아 日記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雲養의 日記에는 濟州民俗놀이(打麥놀이 海女歌 등)에 關하여도 자세한 記錄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本人이 民俗學에 門外漢이라 比較는 어렵지만 그 自體는 신기한 것이고 特히 敎亂記事 가운데 濟州 독특한 것은 아니겠지만 民會측 西陣大將 李在秀의 具軍服 모양과 特히 그가 大靜巡視때에는 絲氈笠에 孔雀羽를 꽂고 甲紗戰服에 鞭을 들고 眼鏡을 끼고 革鞍 駿馬에 올라 洋兩傘까지 받쳐들어 前後 옹위하여 錦衣還鄕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城안에서 빌린 것이라 하였으며 李在秀가 21歲였다는 것을 다른 册에서 본 것과 照合하면 雲養의 기록은 映畵場面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 5월 21일條

* 동국대·정치학

에는 大靜郡守 蔡龜錫이 和平交涉으로 보내졌을 때 20일 黃沙坪앞에 白旗에 「大靜郡守爲曉諭次來到」라는 글을 쓴 것을 세워놓자 民黨측에서 모셔갔다는 것은 增補耽羅誌(1954 金錫翼)에 5월 28일 民黨入城時 斥邪旗를 들고 들어갔다[1]는 場面과 함께 그때 사용된 깃발을 짐작케 한다. 또 카톨릭硏究誌 史話(1935. 10월호)에 敎人들이 「外人(非信徒의 뜻—필자)들이 神位로 받드는 樹木(神木—필자)과 祠堂을 채벌 파괴하였으니……」[2]하는 것은 敎亂原因의 하나를 짐작케 하는 場面이기도 하다.

開城時 濟州女陣의 拔砲投棄相(5월 28일), 狀頭의 釋放要求데모相과 侍衛隊訓鍊을 보고 隊長에게 물을 뿌렸다든지(6월 15일) 神父가 濟州落城하고 敎徒가 많이 殺害되자 發狂하듯 仆頓하고 나가 같이 죽겠다는 슬픈 場面, 佛艦의 上陸兵 50名이 上陸하고 韓國말을 잘하는 朴神父(佛人)가 내일 午時까지 狀頭를 체포치 않으면 佛兵을 풀어 치겠다는 脅迫과 傳令을 잡는 記事(6월 1일조)등 寫實的인 記事가 논·픽손式으로 엮어져 있다. 記事는 이렇게 흥미롭다 할지라도 事件의 槪要는 整理할 必要가 있다.

Ⅱ. 事件의 展開

濟州土俗은 他地方과 같이 原始信仰이 民間에 퍼져 있던 것은 勿論이고 特히 蛇神과 巫堂 등이 崇拜되고 各處에 神木과 神堂이 많아 民諺에 「堂 5백, 절 5백」이라는 말까지 있었다」[3] 한다. 여기에 若干의 天主敎人이 壬亂때부터 있었다고는 하나 1900년 전후부터 天主敎가 本格的으로 傳道되기 시작하여 1899년 Peynet 裵神父가 들어왔다가 익년 Marcel Lacrouts 具瑪瑟神父와 바뀌고 敎亂이 일어난 1901년 봄에 Mousset 文神父가 들어와 具神父는 濟州邑 文神父는 西歸浦 한 논에 敎堂을 짓고 敎人數 약 242명 豫備信徒 약 700여명을 불러 들였다 한다.

1) 柳洪烈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敎迫害〉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集》 1956. p. 509.
2) 上同 p. 510.
3) 上同 p. 507.

新宗敎는 依例 土俗信仰과 마찰이 있게 되는데 그 첫 事件은 1901년 2월 9일字의 陰晴史에는 旌義敎堂 측에서 吳氏老人을 殺害했다 하고 이어 앞서는 지난달 前訓長 玄有珣을 잡아갔다고 하였으며 22일자 기사는 旌義사건으로 濟州에서 三邑에 通文을 돌려 이달 보름(양 3월 5일)후에 觀德亭에 모여 敎堂件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敎堂측에서도 이의 대비책을 세웠는데 서로 양보치 않아 邑人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워 했다고 한다. 3월 5일과 6일에는 敎人中에 舊牧使 李庠圭에게 돈을 뺏긴 사람들이 그가 떠나는 참에 돈을 요구하고 旌義사건의 主人公인 朴會長이 술에 취하여 敎徒를 이끌고 舊牧使에게 實力行使를 하려다가 具神父에게 制止를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3월 18일에는 流配敎人 李範疇가 獄에 갇힌 것을 具神父가 郡守에게 따져 衆人環視 속에 實力으로 獄門을 열고 데리고 나오는 事件이 있어 神父의 威勢가 당당함을 과시하는 事件이 있었다. 4월 8일 기사에는 大靜縣人들이 私設商務會社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敎人의 作弊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4] 이상과 같은 단편적인 기사는 그외에 기록되지 않은 非敎徒와 敎徒간의 소소한 마찰이 그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데 그것은 捧稅官 姜鳳憲의 苛斂誅求에 一部 敎人이 그 앞잡이로 橫暴를 해왔다는 것이 기사로 나타난다. 4월 12일까지는 捧稅官의 公土課稅가 무거워 民怨이 甚했는데 이날 中央에서 開國以來 濟州에 免除됐던 地稅를 새로 調査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訓令이 내려와 분규가 예상되는데다가 더구나 內藏院卿 李容翊의 訓令으로 捧稅官에게 官民 得失까지 兼察하는 御史格의 막대한 權限까지 부여되어 全島의 公土·貢馬·淺場禾稅·畓白米·漁場·鹽盆·森林 및 三郡所產을 모두 조사하여 徵稅하도록 하고 甲午以來 없었던 布까지 모두 바치도록 하였다

그런데 5월 9일자에는 捧稅官의 橫暴로 民田을 公土라 하여 뺏고 人家의 間數를 摘奸하고 심지어 뒷간까지 징세하며 洞里나 山 위의 樹木에도 큰 것은 數十兩, 漁網도 800兩까지 매겼다. 또 敎人과 짜서 公土말음(舍音)·漁船·漁網收稅를 敎人에게 부탁하고 물고기 10마리를 잡는 사람이 있으면 敎

4) 商務社는 契의 擴大型으로 짐작되는데 徵稅請負를 맡은 곳도 있었으니 다음에 말하는 敎人의 捧稅官 앞잡이와 對抗하려는 意도 있었던 듯 하다.

人이 그 半을 빼앗아 上納하고 鷄卵도 半을 빼앗아 鷄卵稅라 하였으며, 牛馬鷄犬 모두 稅를 免치 못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山川草木 鳥獸魚鼈마다 난리를 만났다 하고 三邑의 돈은 마르고 牛馬田土의 값도 暴落하여 이러고도 어찌 난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라고 적고 있다.

이것을 보면 惡名높은 李容翊의 뜻을 받들은 捧稅官의 유례없는 苛斂誅求에 철없는 敎人들이 加勢하여 敎人들은 新宗敎에 대한 島民의 抵抗에다가 捧稅官의 가렴주구 共犯으로 二重으로 미움을 사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敎人과 非敎人의 實力衝突로 敎亂은 本格段階에 들어선다.

충돌의 시작은 光武 5年(1901) 5월 6일의 일로 敎人 大靜副由吏가 座首吳大鉉의 妓妾을 奸한 것이 告發되어 笞 30에 囚監되자 敎人 金進士가 50여명의 교도를 끌고와 郡守에게 따지고 破獄하여 罪人을 데리고 나가면서 한편으로 商務會民 數人을 잡아감으로 商會측에서 이를 듣고 길목을 지켰다가 이를 구출하고 敎人 7~8人을 구타했다는 소식이 濟州邑에 알려졌다. 이로부터 民會와 敎徒간의 갈등記事는 밀도있게 전개되어 5월 9일에는 濟州邑에 大靜縣民會의 說이 요란하여 濟州城으로 올 것이라 하여 城中은 두려워하는 공기가 나돌고 濟州敎堂도 各處敎人 천여명을 소집하여 銃械를 준비하고 守城之計를 세웠다. 다음 5월 10일에도 大靜民入城의 설이 자자하여 捧稅官 姜鳳憲은 脫出하고 敎堂 측으로는 現在 濟州에 와있는 具神父(佛)외에 文神父(佛)가 부임했으며 民會와의 위급한 일은 서울에 연락하기 위하여 木浦에 사람을 파견하였다(雲養은 招兵下來를 걱정하고 後에 실제로 佛船 두척이 5월 30일에 濟州에 온다) 5월 11일에도 大靜人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入城之言이 있어 郡守가 明月鎭으로 曉諭次 떠난다. 12일에는 三邑民이 모두 움직여 장차 濟州城으로 온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敎堂도 무리를 모아 戰備를 갖추었다. 그리고 郡守는 民會所에 이르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헤매일 뿐이며 大靜 사람들은 ① 捧稅官이 도망한 것은 郡守의 罪이며 ② 捧稅官 다음에도 高·金의 奸吏를 懲治해야 한다. ③ 濟州에는 반드시 入城할 필요는 없고 3개월만 包圍하면 柴糧이 들어가지 않아 스스로 멸어진다는 등의 말을 주장하였다 하여 이로서 城안은 人心이 흉흉하여 城外로 피난하는

이사짐이 길을 메워 밤새도록 시끄러웠다 하니 危機感이 절정에 달했을 것으로 官廳과 敎堂측의 초조감도 당연히 있을 것이 짐작된다. 이에 대한 反應이 다음날 記事부터 나타나 5월 13일에는 民會측의 소원을 듣고 妥協코저 神父와 敎徒 수백명이 大靜과 翰林으로 갔다. 明月鎭(翰林?)에 갔던 郡守가 돌아와 말하기를 民會側이 捧稅件을 원망하므로 「捧稅官은 떠났고 일체 弊害는 모두 民願에 따라 없앨 터이니 散會하라」 하였더니 民會측에서 「5월 16일에[5]에 黃沙坪에서 大會를 열어 革罷條件을 議論하여 바칠 터이니 成帖調印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해달라」함으로 이를 許諾하고 돌아오는데 神父를 만나 그와같이 다시 가서 같은 말로 曉諭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 妥協은 敎亂豫防의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던가 싶다. 이 妥協이 말 그대로라면 다음의 敎堂측의 翰林示威促去·大靜城示威攻防만 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 妥協을 슬기롭게 利用했더라면 濟州敎亂은 豫防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希望的인 好機였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다음 5월 14일의 記事는 5월 6일의 제 1 차 충돌에 이은 제 2 차 충돌사건이 翰林洞에서 일어난다. 즉 어제 翰林洞民會所로 간 수백명의 敎徒들은 民會사람들이 人家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수색하여 총을 쏘며 示威하고 백성들이 놀라 자빠지고 흩어지는 사이에 狀頭이하 6명(吳大鉉 姜博 馬千三 姜希鳳 등으로 보임)[6]을 잡아서 郡守에게 넘기고 神父는 大靜·旌義를 돌아서 왔다고 한다.

이번 일은 曉諭나 言約이 아닌 일방적 威脅으로 약한 百姓을 힘으로 눌러 대항치 못하게 함으로서 敎堂의 힘은 이로부터 더욱 확장됐다고 했다. 이튿날 5월 15일 기사에는 제 3 차 충돌사건으로 어제(14일) 大靜에 들어간 敎徒 수백명은 총을 쏘며 入城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쳐서 城中은 서로 피하여 텅 비고 神父 2人은 각각 西·南門樓에 앉아 敎徒를 나누어 配置하여 城을 지

5) 記事에는 "28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陰曆이고 陽曆으로 換算하면 5월 16일이 되어 濟州城包圍가 시작된 날이 된다.
6) 5월 17일 記事에 있음. 그러나 여기에는 再昨日大靜에서 잡아온 6人中의 4人이 狀頭라고 되어 있음.

겼는데 城外民黨 수천명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城으로 向했는데 敎徒들은 軍器庫門을 破하여 총·칼·砲·火藥을 탈취하여 民黨으로 向하여 총을 쏘아 1인이 즉사하고 1인은 배에 총을 맞아 얼마 안있다가 죽고 또 2·3인은 重傷이나 살기 어렵고 나머지는 다 도망했다는 것이다.[7] 그리고 이날(15일) 저녁에 敎徒측은 神父가 敎徒들을 인솔하여 濟州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튿날 5월 16일은 民會측이 黃沙坪에 모여 要求條件을 公議하여 牧使에게 제출키로 5월 13일에 約束한 날로서 民黨은 四方에서 몰려들어 濟州城 안으로 와 미리 야단스럽게 소문을 퍼뜨리고 敎人들은 城 위에 나란히 서서 총을 걸어 놓고 쏘아댔다. 이에 濟州郡守(兼牧使) 金昌洙는 大靜郡守蔡龜錫(本島 出身으로 商務會狀頭로 指目되어 敎徒들이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나가 曉諭코저 하였으나 蔡는 城門에도 이르기전에 敎人들에게 붙들려 辱을 많이 얻어먹고 나가지도 못하였다. 저녁 때에 이르러 城上에는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砲聲이 요란한데 혹은 民黨이 이미 入城했다고도 소문이 나 人心이 흉흉한데 砲聲이 멎고 어디서 온 民兵인지 鍊武亭에서 얼마 멀지 않은 三里쯤 떨어진 蓋園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放砲 수십차에 어두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짐작도 못하되 千명은 된다 하는데 城에 기댄 敎人은 불과 수백이므로 神父가 듣고 급히 北城모퉁이로 가서 洋총을 네번 쏘니 民黨이 흩어져 물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民黨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므로 敎人들은 밤새 경계하고 城中은 잠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東쪽에서 民兵 수천이 왔는데 鳥銃 300자루에 나머지는 모두 竹槍이라 하며 日間 각처에서 民兵이 모두 와 모이면 장차 衆寡不敵之勢가 되어 두렵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또 敎人들이 軍器庫를 열어 銃砲軍火 등을 가져갔다고 듣고 있다.

이리하여 결국 民會側은 約束대로 16日에 城外에 集會를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敎黨側이 濟州城堞을 점령하여 放砲하게 된 것은 民黨 측이 당초 官을 상대로 弊政改革을 要求하여 그 是正約束을 받는다는 目的과는 다른 樣相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敎堂측에서는 5월 6일의 충돌과 13, 14일의 翰林·大靜

7) 大靜留鄕報告 5月 15日字 記事中

에서 先制示威攻擊을 한 후이므로 防禦本能으로 濟州城堞을 점령한 듯하다.

다음 5월 17일은 午前중 우뢰와 風雨가 크게 일어난 가운데 南城 쪽에 砲聲이 크게 나며 四門은 出入을 禁止케 되었다. 저녁때는 南門外 5里의 光壤村으로 神父가 崔亨淳 등 敎徒들을 이끌고 나가자 民黨이 흩어지고 敎徒가 放銃하여 民黨 10餘名과 婦女 3~4인이 죽는 제 4 차의 충돌이 벌어져 神父 2인의 威勢가 당당하고 民黨은 烏合之衆임이 들어났다. 5월 18일에는 城안 사람과 敎人들은 같이 城堞에 大砲를 四門 위에 얹어 놓고 崔亨淳은 千里鏡(望遠鏡 또는 雙眼鏡?)으로 사라峯에 올라 黃沙坪을 바라보니 民黨이 4~500명에 불과하여 염려할 것 없다하고 스파이 1인을 잡아 들어왔다. 神父가 黃沙坪에 나가 妥協코자 하였는데 禾北別島에 나가있는 郡守가 말리고 本人이 나가 曉諭하였는데 民會측은 平民 21명이 敎人에게 殺害된 원통함을 호소하며 듣지 않았다. 이것은 民黨의 訴寃대상이 官에서 敎人들도 바뀐것을 의미한다. 22일에는 敎人들이 軍器庫에서 大中小砲 400個를 빼내어 城堞等에 配置하였다. 兩便은 21일부터 23일까지 和平交涉을 하다 決裂되고 城안은 柴糧이 城밖으로부터 들어오지 않는 苦痛으로 三徒民人들이 城門을 열고 往來할 수 있게 해달라고 官에 要求하며 觀德亭앞에 모이니 神父가 3~5일만 기다려 달라고 회유하여 되돌아 갔는데 이것은 敎黨側에서 木浦로 사람을 보내 서울 敎黨으로 連絡케 하였으므로 京兵이 내려오거나 혹 佛艦隊가 그간에 오기를 期待하였을 것이다.[8] 그러나 그 期待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城中은 柴糧不足에 굶게 되고 敎人들도 야위게 되었다. 5월 25일(釋誕日 음 4월초 8일)에는 城밖에서 萬一 門을 열고 敎人을 잡아 보내지 않으면 모두 敎人으로 취급하겠다는 通文이 들어와 三徒民이 觀德亭 앞에 구름같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女子數가 반으로 마침 西城 아래서 敎人이 火藥을 말리다 불이나 民家에 延燒한 것을 敎人들이 그 허물을 住民들에게 돌림으로 住民들이 敎人 2명을 묶어 죽이려 하므로 神父가 급히 묶인 敎人을 야단치고 郡守에 넘김으로서 無事하였으나 住民들은 城문을 열어줄 것을 떠들어 댐으로 神父는 할 수 없이 3일후 5월 28일 正午에 開門할 것을 約束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京

8) 續陰晴史 5월 24일條

軍이나 佛艦의 援助가 오지 않아 28일에는 흰수건을 머리에 쓰고 지팡이를 든 千餘名의 女陣이 男陣과 함께 女子指揮者의 號令에 따라 城에 올라가 銃砲를 빼어 城밖으로 던져 萬衆이 함성을 지르며 敎人을 잡으라 하니 敎人은 모두 도망하다 붙들렸고 民會측은 그후 西陣이 入城하고 東陣은 固辭하는 것을 入城케 함으로써 濟州城의 攻防戰은 끝났다. 그후 양일 간에 敎人들은 延 300명이 피살되었으나 두 佛人神父는 郡守의 보호로 無事하였다.

Ⅲ. 問題點들

이상은 敎亂의 本體만 略述하고 事後收拾까지에는 紙面관계로 言及치 못하였지만 그것까지 包含해서 辛丑敎亂의 性格과 問題點을 몇가지로 整理하여 봄직하다.

보통 民亂이라 하면 官吏가 대상이 되는데 濟州敎亂은 처음에는 捧稅官의 酷稅를 目標로 民會를 열고저 하였다가(5월 13일자) 天主敎측의 翰林·大靜 및 濟州城外의 先制示威攻擊을 받고는 그 第1次 目標가 天主敎의 民會측 21名 殺害의 問罪로 性格이 變하였다는 것이고(5월 22일자) 天主敎가 先制攻擊으로 나간 理由에는 旌義事件과 徵稅補助行爲中 이미 民心이 敎徒로부터 離脫된 것을 感得했음으로서였다는 것이 짐작된다. 그리고 이 事件의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民官의 未開明이 있어 敎徒의 神父의 治外法權的 威勢를 등에 업고 철없는 짓을 많이 했다는 點과 民會側의 보복殺人도 그 규모가 큰데는 그저 民智의 낮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問題點으로는 첫째 官의 治安能力이다.

a) 神父나 敎徒 金進士에게 어째서 破獄을 當했는가.

b) 衝突은 왜 豫防·鎭壓치 못하였는가.

c) 大靜·濟州城은 왜 敎徒에게 占領당했는가.

d) 軍器庫(大靜·濟州)는 왜 탈취 당했는가.

e) 이상의 侵害를 당하고도 神父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가.

둘째, 敎人들의 事大性이다. 敎人들은 神父를 포함해서 事件을 우리 政府

에 보고하지 않고 木浦에 나가 서울敎堂에 연락하고 서울敎堂 佛公使나 上海의 佛艦隊에 연락했다. 그리고 亂後 佛艦이 들어오자 다시 意氣揚揚해졌다.

셋째, 神父의 高壓的 態度이다.

a) 破獄은 主權侵害아닌가.

b) 洋銃을 直接 發射하고(5월 16일) 敎人들의 放銃殺人을 制止치 못함은 共同正犯아닌가.

c) 敎堂이 부서지고 私品이 損害를 입고 敎徒被殺恤金의 賠償으로 5,160元을 一方的으로 받아가고 島民殺害에 대한 恤金을 치뤘는가.

넷째, 敎堂측의 叛亂的 侵害와 約束 違反行爲이다.

a) 大靜 濟州城에서 城堞을 占領하고 軍器庫를 破壞하고 武器를 奪取했다 濟州에서의 탈취무기는 최소 400여자루로 집작된다(5월 22일자).

b) 翰林 濟州에서는 왜 民會에 대하여 先制示威攻擊을 加했나.

다섯째, 佛蘭西軍艦의 示威는 合法的인가.

a) 6월 1일 2隻의 佛艦에서 50명의 兵員을 無斷上陸시키고 새로온 朴神父(佛人)가 牧使에게 狀頭 金南鶴과 民擾의 魁라 하며 大靜郡守 蔡龜錫의 체포를 要求하고 來日午時까지 체포치 않으면 우리 軍人을 파견하여 소탕하겠다고 脅迫하고 우리 傳令을 잡고 兵員 25人으로 西大門을 지키게 한것은 合法的인가. 이것은 다음날 도착한 宮內府顧問官 미국인 Sandos가 佛公使의 艦長앞으로 上陸치 말고 돌아오라는 便紙를 얻어와서 提示함으로써 돌려보내는데 성공하였는데 1隻은 계속 近海에서 待期하고 있었다가 다시 9日날 文神父를 태우고 들어와 亂魁체포를 脅迫하고 望遠鏡으로 民黨陣을 살피고 大砲 1~2發이면 쓸어버리겠다고 脅迫하여 牧使가 겨우 말렸다는데 과연 그것은 온당한 처사인가.

이상의 점들은 整理가 잘되지 않았지만 敎亂史를 읽고서 아무리 主權이 미약했던 時代의 일이라 할지라도 首肯이 잘 되지 않는 點들이었다.